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신문답

혜월 스님(4)

미나미 총독, 진리를 일러 주십시오

혜월 스님, 귀신 방귀에 털난 소식이다

일제 말기, 미나미 지로(南次郎·1874~1955) 총독이 남방에 큰스님이 계시다는 말을 듣고 부산 안양암에 주석하고 있던 혜월(慧月·1861~1937) 스님을 참방하여 인사를 드렸다.

“스님의 도에 대한 명성은 일찍부터 잘 듣고 있었습니다. 진좌 찾아뵙고자 했으나 이제야 뵙습니다.”

총독은 절을 하고 “부처님의 아주 깊고 높은 진리를 한 말씀 일러 주십시오”라며 법을 청했다. 이에 혜월 스님은 대답하듯 말했다.

“귀신 방귀에 털 난 소식입니다.”

총독은 한동안 무로하게 앉아 있다가 일행과 더불어 답답하게 돌아갔다. 총독이 혜월 스님에게 한 방망이 크게 맞았다는 소문이 불교계와 총독부에 자자하게 퍼졌다. 총독에게 무례하게 대했다는 소문에 분개한 총독부의 한 무관이 스님을 단단히 혼내 주리라 작정하고 한 걸음에 달려왔다. 그는 방문을 건어차고 들어가, 참선하고 있는 스님 목에 칼을 들어대고 말했다.

“내 칼 받아라. 그대가 혜월 스님인가?”

“그렇다. 내가 혜월이다.”

하고 스님이 손가락으로 그 무관의 등 뒤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것 보아라.”

뒤를 보는 잘나, 스님이 발뽕 일어나 무관의 등을 치며 소리쳤다.

“내 칼 받아라.”

그러자, 무관은 깜짝 놀라 칼을 떨어뜨리고선 큰절을 하고 항복했다.

일제강점시대 조선 권력의 제1인자인 총독의 위세를 가볍게 놀려 준 일도 놀라운 일이지만, 목에 칼이 들어오는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순간에도 태연하게 응대할 수 있는 것은 깊고 깊은 무심(無心)에서 저절로 우

려나온 묘한 지혜작용이 아닐 수 없다. 혜월 스님이 총독에게 조금이라도 위축된 마음이 있었다거나, 무관의 칼날 앞에서 공포에 떨었다면 한국 선종의 존엄과 스님의 목숨은 한 순간에 땅바닥에 떨어졌을 것이다.

위풍당당하게 혜월 스님을 참방한 총독은 “불법의 진리를 설해 달라”며 그물을 던지지만, 백전노장인 스님의 “귀신 방귀에 털 난 소식”을 접하고는 더 이상 입을 뿔 수 없었다. 형상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 귀신도 허무한데, 그 귀신이 방귀를 핀다는 것, 더군다나 그 방귀에 털이 난 것이라고 하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 도리는 총독이 아니라 총독 할아버지

알 수 없는 진리의 암호인 것이다.

이와 관련, 혜월 스님의 사제인 만공 스님은 이런 법문으로

“잡된 말은 입 밖에 나가지 않나니라. 허공에 빠가 있는 소식을 알겠느냐? 귀신 방귀에 털 나는 소식을 알겠느냐? 등상불(等相佛)이 법문하는 소리를 들겠느냐? 생각이 곧 현실이요, 존재니라. 생각이 있을 때는 삼라만상이 나타나고, 생각이 없어지면 그 바탕은 곧 무(無)로 돌아가나니라.”(만공 법어집)

귀신 방귀에 난 털은 본래 생겨난 적이 없기에 본래 사라지는 것도 아닌 무생법인(無生法空): 일체가 불생불멸임을 깨닫는 것을 상징한다. <반야심경>에서 “일체의 존재가 공하여 실체가 없으며, 생기는 것도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諸法空相 不生不滅)”는 의미와 같다. 본래부터 한없이 밝고 지경없이 있고, 귀신 방귀에 털 난 소식을 온몸으로 체득할 수밖에 없다.

김성우 객원기자

생기는 것 사라지는 것 없는

무생법인의 가르침 상징

‘초월’의 자리서 나온 법문

“화두공부는 간절함이 전부다”

봉화 축사사 철야정진법회...무어 스님 ‘노파심절’로 지도

중앙고속도로에서 풍기IC나 영주IC로 나와서 지방도로를 따라 가다가 경북 봉화군 물야면에서 시골길로 다시 8km를 더 들어간 오지, 해발 1206m의 문수산 정상 바로 아래 언덕을 연화대로 삼아 웅장하게 자리 잡은 축사사. 이런 풍광 좋은 외진 곳에, 게다가 해가 저무는 저녁시간에 재가 수행자들이 하나 둘 모여든다. 도심에서도 모이기 힘든 300여 불자들이 주말 휴가를 반납하고 산사를 찾은 이유는 뭘까. 그것은 마치 잉어가 정령수를 찾아 물길을 따라 오르듯 홀륭한 선지식과 편안한 도량, 좋은 도반을 만나기 위한 본능적인 몸짓이 아닐까.

4월 21일은 매달 셋째 주말에 열리는 축사사 철야참선정진의 네 번째 법회 날이다. 서울 봉은사 신도 33명을 포함한 300여 수행자 가운데 거수들도 50여명이나 눈에 띈다. 지난 1월 등록한 260여 불자 외에 40여 명이 늘 추가로 참석할 정도로 호응이 좋다. 저녁 9시부터 대웅전에서 열린 축사사 선원장 무어 스님의 참선법문이 시작되자 이 곳 수행 분위기가 감지된다. 참선 초보자에게서부터 구참자에게 이르기까지 꼭 필요한 법문들을 자상하면서도 간곡하게 일러주는 모습에 환희심이 절로 난다.

“인간사의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니다. 화두도 진의(眞意)를 일으키느냐, 못 일으키느냐, 깨치느냐, 못 깨치느냐는 참선자의 뜻과 정성, 믿음과 발심에 달렸습니니다.”

무어 스님은 “화두 공부는 간절 절(切)자 한 자면 족하다”고 거듭 강조한다. 며칠 굶은 사람이 밥 생각하듯이, 심하게 목마른 사람이 물 생각하듯이, 절·팍심 된 노파가 전쟁터에 나간 외와들 생각하듯이 앉으나 서나

가나오나 간절하게 의심을 일으키라는 것. “화두가 간절히 들리면 선악(善惡)의 망상을 떠나게 되고, 해태와 방일이 있을 수 없으며 무기(無記)에도 떨어지지 않으며 마(魔)가 들어올 틈도 없으며, 분별심이 나지 않아서 의도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화두가 간절하지 못하면 화두 참가가 아니고, 화두의 간절함을 모르면 공부인이 아닙니다.”

스님의 노파심절(老婆心切)한 법문은 대중들이 한 사람이라도 못 알아들을까봐 조용하면서도 느끼게 이어진다. 한 마디, 한 마디에 당신의 체험을 담아 확신과 자신감을 심어주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화두 간절히 들면 망상 떠나게 되고 무기에 떨어지지 않고 분별심 안나 “오매일여의 선정에서 진일보 하라”

“화두가 깊은 잠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은산철벽(銀山鐵壁)과 같을 때에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아! 생사(生死)가 들어 아니구나. 인간의 본성은 죽거나 없어지지 않고 불생불멸(不生不滅)이라고 하더니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정도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던 사람도 담담해지고 자신만만해집니다.”

화두가 점점 깊어지고 순숙(純熟)해지면 크고 뚜렷하게 되어 하나의 의심문자, 의단(疑團)이 된다. 나와 화두가 타성일편(打成一片)이 되는 이 시절에는 화두가 모든 생활 속에서도 조금도 어둡지 않고, 하루종일 화두가 간단없이 여여(如如)하며, 깊은 꿈속에서도 한결 같이 들린다는 경원(敬遠)이다. 옛 어른들이 “타성일편을 못 깨칠까

걱정하지 말고 타성일편이 안 되는 것을 걱정하라”고 한 법문이 이것이다. 그리고 보면, 무어 스님의 가르침은 성철 스님이 강조한 풍중일여, 숙면일여를 통한 구경각의 증득이란 수행관과 맥을 같이 한다.

“깨달음, 확답대오는 반드시 오매일여(屢屨一如)의 선정에는 들어야 하고, 오매일여가 되어도 은산철벽을 투과해서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진일보(進一步) 해야 드디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해야 생사자제(生死自在), 생사해탈(生死解脫)을 할 수 있습니다.”

스님은 불교의 이상은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달아서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난 대자유인(大自由人)이 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조금 지혜가 생겼나 하더라도 ‘내가 깨웠다’, ‘내가 해마쳤다’는 생각을 절대 말고, 그물수레 더 지극하게 밀고 나가야 참으로 깊은 경계를 체험할 수 있다는 당부는 착각도인들이 난 무하는 오늘날의 수행풍토에 경계어 되는 소중한 법문이다.

헛기침 소리도 나지 않는 가운데 이어진 1시간여의 설법은 그야

말로 마음 땅에 잔잔하게 내리는 이슬비와 같은 심지법문(心地法門)이었다.

불자들은 스님의 법문으로 더욱 각오를 다지며 선원장과 심경당 선방에 나뉘어 주리를 뜬다. ‘탁! 탁! 탁!’ 죽비 삼성이 울리자 축사사는 들연 깊은 정적에 휩싸인다. 입정(入定)한 재가 선객들은 새벽예불 전까지 선정에 채 화두삼매의 법음을 즐겼으리라.



축사사 선선당에서 참선을 지도하는 무어 스님(위)과 법문을 듣는 불자들.

축사사 사처럼 재가 선객의 총림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무어 스님의 10여 년 간의 중창불사가 오로지 출·재가를 위한 수행 및 교육공간의 조성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동안 틈틈이 진행한 재가자 대상의 참선교육은 입소문을 타고 수행자를 모이게 한 실제적인 원인이 됐다. 선지식의 선법문과 실상, 선법(禪病) 치유, 문답 및 지도점검 등이 동시에 이뤄지는 보기 드문 참선도량이란 인식이 소리소문 없이 확고히 자리 잡은 것이다. 24년 참선경력의 말마 김준영(48·서울 석촌동) 거사는 “10여 년 전부터 무어 큰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지도점검을 받으며 조주 ‘무자’ 화두를 듣고 있다”면서 “큰스님의 자상한 가르침으로 내생에도 ‘무자’ 화두로 정진하고 싶을 정도로 신심이 난다”고 말했다.

중창불사 화랑을 목전에 둔 축사사는 올해 상반기까지 철야참선법회를 통해 간화선 기초과정을 교육하고, 이후 무어 스님의 조사어록 강의를 중심으로 참선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다. (054)672-7579

봉화 축사사·김성우 객원기자

수행계시판

월정사 한암 대중사 수행학림 5월 11~13일 참법 및 포상, 삼보일배, 좌선법 강의 및 지도, 철야정진, 전나무 숲길 포행, 한암대중사 탄신제, 한암대중사 선사상 국제학술세미나 등으로 진행 (033)332-6661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평생부자 지갑 오마니반메흠福지갑 인도산 자수정 108 염주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평생 행운과 소원을 성취시키는 불멸의 염주

존경하는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남성용 솔나노 지갑 여성용 옹나노 지갑

원하는 재물과 땅속의 보물까지 얻는 평생 부자지갑!!

역경학적으로 일반폐지해는 12년마다 오지만 정해년 폐지해는 60년마다 온다. 정(丁)은 타오르는 불을 뜻해 붉은 돼지 해라고도 하고 음양의 조화로 붉은돼지 10마리가 모이는 2007년 정해년을 황금폐지해라 한다. 황금폐지해에 결혼을 하면 평생 풍요롭게 살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평생부자로 살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로이 바꾸면 들고도는 돈이 새지갑으로 온다는 좋은 해다. 동서남북의 재물을 모으고 어려움들이 신통묘하게 풀린다는 신묘장구 다라니경에 나오는 육자대명 왕진언 옴마니

반메흠 복지갑이 황금폐지해를 맞아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점안불공과 축원불공까지 마친 옴마니 반메흠 복지갑은 사용해보면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통묘통한 신비한 영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소문이 나왔다. 구입한지 보름만에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귀인을 만나고, 안 되던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점포가 쉽게 팔리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 포기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등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지갑앞면에는 동서남북의 돈과 복을 부르는 육자대명 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들어온 돈과 가진돈이 헛되어 나가지 않게하는 팔십상 보병과만사형통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금·銀나노 처리 까치한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 될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600년만에 찾아온 황금폐지해에는 음양의 조화로 남성은 황금브론조색지갑, 여성은 조색지갑에 황금색 라인인 있는 지갑을 사용하면 황금폐지해에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 불광사에서는 옴마니반메흠복지갑을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 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여성용장지갑 95,000원 남성용장지갑 6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화제의 염주 인도산 자수정 108 염주

승리와 행운의 염주 평생 행운과 소원을 성취시키는 불멸의 염주



특별중정통 손목단추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품격!!

영원히 살아숨쉬는 불멸의 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인도산 천연자수정 108염주가 시판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자수정은 맑아지고 있으면 화를 쫓고 행운과 소망하는것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망하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어 모자를 쓴 고대 인도 상인과 아라비아 상인들 이마에는 자수정 을 꼭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자주 본다. 인도산 자수정의 특징은 어떠한 세공을 해도 오염되지 않는 정화수를 주기적으로 주면 자란다는 보석으로 인도인들은 영원불멸의 보석이라고하여 부처님 보석이라고도 한다. 인도산 천연자수정 108주염주는 인도에

서 염주알을 가공해 국내에서 조립한것으로 색상도 일정해 품위가 있다. 불멸의 보석으로 일컫는 자수정 염주는 지니고 있는것 만으로도 어떠한 역경이 와도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오묘한 뜻이 있어 출시되자 선물로도 인기며 평생사용할 예불법구로 불자는 물론 스님들 까지도 신청하고 있다. 신랑사에서는 불사금 조형으로 구입고객님의 생년월일을 알려 주면 소원성취와 사업번창을 위한 365일 특별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정해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막아!

다쳐울화를 미리쫓는 삼고금강저



삼재소멸 축원불공 마치고 시판!!

2007년 정해년은 600년만에 찾아온 재운이 넘치는 황금폐지해지만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삼년간 재난과 고통속에 살을 시작할수도 있는 어려운 해로 2007년에는 자중자재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세수가 있으므로 위험하지 말고 일을 벌이면 어려움

을 당할수 있으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다쳐울화를 어느정도 막아 큰환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잡귀를 물리치고 다쳐울 화를 미리쫓으며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의 위신력의 법구다. 1부앞도 모르는 협한세상 근신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금강저는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가로5Cm 폭2Cm 금도금하여 가볍도는 지갑속에 넣고다니면 안전하다. 자동차 금강저는 항상 사고의 위험을 지니고 달리므로 운행중에 다쳐울 화를 미리쫓고 마음에 안정을 주는 삼고금강저를 운전석위에 염주를 꿰고 걸고 다니면 안전하다. 삼재소멸 불공을 마친 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준다. 가격35,000원 자동차용금강저 38,000원 전화: (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자동차용 금강저 사고 예방과 화를 쫓는 영험!!